

## 천국의 빛 *Light in Heaven*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8:12)

지난주, 스베덴보리 저, ‘천국과 지옥’(Heaven and Its Wonders and Hell) 14장, ‘천국의 해’(The Sun in Heaven)에 이어 오늘은 15장, ‘천국의 빛과 열’(Light and Heat in Heaven) 중 전반부인 ‘천국의 빛’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빛이 우리를 환히 비추셔서 이 아케이나(arcana, 秘義)가 밝히 이해되도록,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영육(靈肉)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글 머리에 참고 표시(‘※’)가 있으면 주석이거나 역자가 보탠 설명입니다.

※ 주석에 나오는 괄호 안 숫자들, 가령, ‘AC.1053, 1521...’ 같은 숫자들

‘천국의 빛(Light in Heaven)’은 ‘Arcana Coelestia’라고, 스베덴보리가 쓴, 총 10,837개의 글로 된 창세기, 출애굽기 주석의 글 번호를 가리킵니다.

시작합니다.

126 자연적 사고만 하는(思考, think from nature alone) 사람들 입장에서는 천국들 안에도 빛이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실제 실상은 이 세상 한낮 정오의 빛보다 몇 배나 더 밝은 빛이 천국들 안에 있는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빛을 저는 자주 보았고, 심지어 저녁에도 밤에도 보곤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세상 빛은 천국 빛과 비교했을 때 그림자 수준이라고 하는 천사들 말을 듣고는 의아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빛을 본 지금은 정말 그렇다는 걸 제가 오히려 나서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천국 빛의 그 밝기와 광휘는 말로 도저히 어떻게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천국에서 그동안 제가 본 모든 것은 바로 그 빛으로 본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보다 훨씬 더 명료하고 또렷하게 본 것입니다. *That there is light in the heavens those who think from nature alone cannot comprehend*

‘천국의 빛 (*Light in Heaven*)’

*d; and yet such is the light in the heavens that it exceeds by many degrees the noonday light of the world. That light I have often seen, even during the evening and night. At first I wondered when I heard the angels say that the light of this world is little more than a shadow in comparison with the light of heaven; but having seen it I can testify that it is so. The brightness and splendor of the light of heaven are such as cannot be described. All things that I have seen in the heavens have been seen in that light, thus more clearly and distinctly than things in this world.*

127

천국 빛은 이 세상 빛 같은 자연적 빛이 아닌, 영적 빛입니다. 이 빛은 해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며, 이 해는 (앞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신적 사랑(*the Divine love*)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천국에서는 해이신 주님으로부터 발(發)하는 것을 신적 진리(*Divine truth*)라 하지만, 그 본질은 신적 선(*Divine good*)입니다. 이를 통해 천사들은 빛과 열을 얻는데, 빛은 신적 진리로부터, 열은 신적 선으로부터 얻습니다. 천

국의 빛이, 열도 마찬가지, 이런 근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들 빛과 열은 자연적인 게 아닌,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sup>96</sup> *The light of heaven is not a natural light, like the light of the world, but a spiritual light, because it is from the Lord as a sun, and that sun is the Divine love (as has been shown in the foregoing chapter). That which goes forth from the Lord as a sun is called in the heavens Divine truth, but in its essence it is Divine good united to Divine truth. From this the angels have light and heat, light from Divine truth, and heat from Divine good. As the light of heaven, and the heat also, are from such a source, it is evident that they are spiritual and not natural.*<sup>96</sup>

※ 96. 천국들 안에 있는 빛은 모두 해이신 주님에게서 옵니다. *All light in the heavens is from the Lord as a sun (n. 1053, 1521, 3195, 3341, 3636, 3643, 4415, 9548, 9684, 10809).* 주님에게서 발하는 신적 진리는 천국에서는 빛으로 나타나며, 천국 모든 빛을 제공함 *The Divine truth that goes forth from the Lord appears in heaven as light, and furnish*

‘천국의 빛(Light in Heaven)’

*es all the light of heaven (n. 3195, 3222, 3223, 5400, 8644, 9399, 9548, 9684).*

※ 97. 천국의 빛은 천사들과 영들의 시력과 이해, 곧 안목 둘 다를 비춤 *The light of heaven illumines both the sight and the understanding of angels and spirits (n. 2776, 3138).*

128 천사들에게는 신적 진리가 빛인데요, 천사들은 자연적이지 않고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존재들은 영적 해의 빛으로 보고, 자연적 존재들은 자연적 해의 빛으로 봅니다. 천사들에게 이해하는 능력(*understanding*), 곧 안목(*discernment*)이 있는 것도, 그리고 그들의 내적 시력(*inner sight*)인 이것이 그들의 외적 시력(*outer sight*)으로 흘러들어 그들에게 시력을 주는 것도, 그래서 천국에서 해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나 눈에 보이는 것도 다 이 신적 진리로 말미암습니다.<sup>97</sup> *The Divine truth is light to the angels because the angels are spiritual and not natural. Spiritual beings see from their sun, and natural beings from theirs. It is from Divine truth that angels have understanding, and their understanding is their inner sight, which flows into and produces their outer sight; therefore in heaven whatever is seen from the Lord as the sun is seen in light.*<sup>97</sup>

천국 빛의 근원이 이러하기에 그곳에서 빛은 주님의 신적 진리 수용 정도에 따라, 혹은 같은 말이지만, 천사들의 지성과 지혜의 어떠함에 따라 달라지며, 그래서 천적 나라, 영적 나라의 빛이 다르고, 각 공동체마다 빛이 다른 것입니다. 천적 나라의 빛은 화염과 같습니다. 그곳 천사들이 해로 계신 주님의 빛을 받기 때문이며, 반면, 영적 나라의 빛은 밝게 빛나는 흰색입니다. 그곳 천사들은 달로 계신 주님의 빛을 받기 때문이지요(위 118번 글 참조). 그래서 역시 각 공동체마다 빛이 다르고, 한 공동체 안에서도 중심에 있는 이들은 더 밝은 빛에, 가장자리에 있는 이들은 덜 밝은 빛에 거합니다(43번 글). 한마디로, 천사들은 그들이 신적 진리의 수용체인 정도만큼, 즉 그들이 주님의 지성과 지혜 안에 있는 정도만큼 빛이 있으며<sup>98</sup>, 이것이 왜 그들을 가리켜 빛의 천사들이라 하는지 하는 이유입니다. *This being the source of light in heaven the light is varied there*

요8:12, HH.1.15.126-132

‘천국의 빛(Light in Heaven)’

*in accordance with the reception of Divine truth from the Lord; or what is the same, in accordance with the intelligence and wisdom in which the angels are, thus differently in the celestial kingdom and in the spiritual kingdom, and differently in each society. In the celestial kingdom the light appears flaming because the angels there receive light from the Lord as a sun; but in the spiritual kingdom the light is shining white, because the angels there receive light from the Lord as a moon (see above, n. 118). So, too, the light differs in different societies, and again in each society, those that are at the center being in greater light and those in the circumference in less light (see n. 43). In a word, the angels have light in the same degree in which they are recipients of Divine truth, that is, are in intelligence and wisdom from the Lord;<sup>98</sup> and this is why the angels of heaven are called angels of light.*

※ 98. 천국 빛은 천사들의 지성 및 지혜와 하모니를 이룸 *The light in heaven is in harmony with the intelligence and wisdom of the angel*

*s (n. 1524, 1529, 1530, 3339). 각 천국들마다 거기 존재하는 수많은 빛의 차이는 거기 존재하는 천사 공동체들의 수만큼이나 다르며, 천국들마다 선과 진리의 무궁한 변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와 지성이 존재하는 것 Differences of light in the heavens are as many as there are angelic societies; and as there are in the heavens endless varieties of good and truth, so are there are of wisdom and intelligence (n. 684, 690, 3241, 3744, 3745, 4414, 5598, 7236, 7833, 7836).*

# 129

모든 천국에서 주님은 신적 진리이시며, 그곳에서는 신적 진리가 빛이므로, 그래서 말씀에서 다음 구절들처럼 주님과 주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진리를 일컬어 빛이라 합니다. *As the Lord in the heavens is Divine truth, and the Divine truth there is light, so in the Word he is called Light, likewise all truth is from him, as in the following passages:*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8:12) *Jesu*

‘천국의 빛(Light in Heaven)’

*s sai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he that followeth Me shall not walk in darkness, but shall have the light of life (John 8:12).*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9:5) *As long as I am in the worl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John 9:5).*

<sup>35</sup>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sup>36</sup>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sup>46</sup>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요12:35, 36, 46) *Jesus said, Yet a little while is the light with you. Walk while ye have the light, lest darkness overtake you. While ye have the light believe in the light, that ye may be sons of light. I have come a light into the world, that at whosoever believeth in Me may not abide in darkness (John*

*n 12:35, 36, 46).*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3:19)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but men have loved the darkness rather than the light (John 3:19).*

요한은 주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John says of the Lord:*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1:9) *This is the true light which lighteneth every man (John 1:9).*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마4:16) *The people that sit in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 and to them that were sitting in the shadow of death light is sprung up (Matt. 4:16).*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사42:6) *I will give thee for a covenant of the*

요8:12, HH.1.15.126-132

‘천국의 빛 (*Light in Heaven*)’

*people, for a light of the Gentiles (Isa. 42:6).*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49:6) *I have established Thee for a light of the Gentiles that Thou mayest be my salvation unto the end of the earth (Isa. 49:6).*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계21:24) *The nations of them that are saved shall walk in his light (Rev. 21:24).*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시43:3) *Send out Thy light and Thy truth; let them lead me (Ps. 43:3).*

이들 구절과 다른 데서도 주님은 빛으로 일컬음을 받으시는데, 이 빛은 신적 진리에서 나오며, 신적 진리는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진리 자체도 마찬가지로 빛이라 합니다. 모든 천국에서 빛은 해로 계신 주님에게서 나오기에,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 앞에서 변모(變貌)하셨을 때, *In these and other passages the Lord is called light from Divine truth, which is from him; and the truth itself is likewise called light. As light in the heavens is from the Lord as a sun, so when he was transfigured before Peter, James, and John:*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마17:2) *His face did shine as the sun, and his raiment was white as the light (Matt. 17:2).*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막9:3) *And his garments became shining, exceeding white as snow, so as no fuller on earth can whiten them (Mark 9:3; Matt. 17:2).*

주님의 옷이 이렇게 보인 것은 모든 천국에서 옷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신적 진리를 나타내기 때문이며, 또

‘천국의 빛(Light in Heaven)’

말씀에서 ‘옷’(garments)은 진리<sup>99</sup>를 상징하기에 시편은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The Lord’s garments had this appearance because they represented Divine truth which is from him in the heavens, “garments” also in the Word signifying truths,<sup>99</sup> consequently it is said in David:*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 같이 치시며 (시 104:2) *O Jehovah, Thou coverest Thyself with light as with a garment (Ps. 104:2).*

※ 99. 말씀에서 ‘옷’은 진리를 상징, 진리는 선을 옷입기 때문 *In the Word “garments” signify truths, because truths clothe good (n. 1073, 2576, 5248, 5319, 5954, 9216, 9952, 10536).* 주님의 옷은 변모하셨을 때, 그분의 신적 사랑에서 발(發)하는 신적 진리를 상징함 *The Lord’s garments when He was transfused signified Divine truth going forth from His Divine love (n. 9212, 9216).*

빛이 신적 진리라는 사실은 천사들 뿐 아니라 사람도 영적 빛을 가지며, 신적 진리로 인한 지성과 지혜 안에 있는 만큼 그는 그 빛으로 깨달음을 얻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짐작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적 빛은 그가 가진 이해하는 능력(理解, understanding)의 빛이며, 그 빛의 대상들은 진리들입니다. 그는 이 진리들을 분석, 그룹으로 정돈, 합리(合理, reason) 형성 및 이들로부터 일련의 결론들을 도출합니다.<sup>100</sup> *That light in the heavens is spiritual and that this light is Divine truth may be inferred also from the fact that men as well as angels have spiritual light, and have enlightenment from that light so far as they are in intelligence and wisdom from Divine truth. Man’s spiritual light is the light of his understanding, and the objects of that light are truths, which he arranges analytically into groups, forms into reason, and from them draws conclusions in series.<sup>100</sup>*

※ 100. 사람은 합리적, 이성적인데, 그의 이해하는 능력이 천국 빛의 조명을 받기 때문 *Man is rational because his understanding is illuminated by the light of heaven (n. 1524,*

130 모든 천국에 있는 빛이 영적이라는 사실과 이

요8:12, HH.1.15.126-132

‘천국의 빛 (*Light in Heaven*)’

3138, 3167, 4408, 6608, 8707, 9128, 9399, 10569). 이해하는 능력은 진리를 담는 그릇, 용기(容器, *a recipient*)이기에 그만큼 환해짐 *The understanding is enlightened because it is a recipient of truth* (n. 6222, 6608, 10659). 사람은 진리를 받는 만큼 환한 이해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 진리는 주님에게서 오는 선 안에 있는 진리임 *The understanding is enlightened to the extent that man receives truth in good from the lord* (n. 3619). 이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선으로부터 오는 진리들인데 이들 진리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이해임 *The understanding is such as are the truths from good by which it is formed* (n. 10064). 시력이 세상 빛으로이듯 이해는 천국 빛으로임 *The understanding has light from heaven, as the sight has light from the world* (n. 1524, 5114, 6608, 9128). 주님에게서 오는 천국 빛은 늘 사람과 함께하지만, 그것이 사람 안으로 흘러드는 건 사람이 선한 진리 안에 있는 정도만큼만임 *The light of heaven from the Lord is always present with man, but it flows in only in the degree that man is in truth from good* (n. 4060, 4214).

이해하는 능력으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빛이야말로 진정한 빛이라는 사실을 자연적인 사람은 모릅니다. 그는 그런 것을 눈으로 볼 수도, 머리로(*by thought*) 지각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빛을 인식, 이것과 자연적 빛을 구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빛 아래서는 자연적으로만 생각할 뿐 도무지 영적으로는 생각할 줄을 모르게 되는데, 그런 빛이 바로 자연적 빛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만 중요시하고(*take account of*) 모든 것의 근원을 자연에 돌리는(*attribute*) 반면,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중요시하고 모든 것의 근원을 주님(*the Divine*)께 돌립니다. 저는 종종 허락을 받아 마음(*the mind*)을 환히 비추는 참된 빛, 사람들이 빛이라고 하는 이 세상 빛(*natural light [lumen]*) 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빛이 있음을 감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내적으로 그 빛 속으로 한 계단 한 계단 들리워졌고, 그러자 저의 이해가 확 밝아져 전엔 깨닫지 못했던 것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더니 마침내는 자연적 빛, 곧 이 세상 빛으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까지도 전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저는 이 천국 빛 아래서는



‘천국의 빛(Light in Heaven)’

이렇게나 명료하고 분명하게 이해, 지각되는 것들을 전엔 아예 이해조차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분하기까지 했습니다.<sup>101</sup> *The natural man does not know that the light from which the understanding sees such things is a real light, for he neither sees it with his eyes nor perceives it by thought. And yet there are many who recognize this light, and distinguish it from the natural light in which those are who think naturally and not spiritually. Those think naturally who take account of the world only, and attribute all things to nature; while those think spiritually who take account of heaven and attribute all things to the Divine. It has often been granted me to perceive and also to see that there is a true light that enlightens the mind, wholly distinct from the light that is called natural light [lumen]. I have been raised up interiorly into that light by degrees; and as I was raised up my understanding became so enlightened as to enable me to perceive what I did not perceive before, and finally such things as I could not even comprehend by thought from natural light. Someti-*

*mes I felt indignant that I could not comprehend these things when they were so clearly and plainly perceived in the light of heaven.*<sup>101</sup>

※ 101. 사람이 감각으로부터 들어올려지면 그는 보다 부드럽고 온화한 빛, 마침내 천국 빛 속으로 들어가게 됨 *When man is raised up from the sensual he comes into a milder light, and at length into heavenly light (n. 6313, 6315, 9407).* 사람이 지성(intelligence)으로 들어올려지는 순간, 거기엔 천국 빛 속으로 올라가는 일종의 생생한(actua) 상승이 존재함 *When man is raised up into intelligence there is an actual elevation into the light of heaven (n. 3190).* 제가 세속적 모든 생각들로부터 물러났을 때 얼마나 그레이트한 빛이 지각되었는지! *How great a light was perceived when I was withdrawn from worldly ideas (n. 1526, 6608).*

사람이 가진 이해하는 능력에는 이런 내적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눈에 대해서도 같은 표현들, 가령 어떤 게 깨달아질 때 그걸 ‘본다’, ‘빛안에, 혹은 아래 있다’ 하고, 반대로 깨닫지를 못할 때 ‘흐릿함, 어둠 속에 있다’ 하는 식의 관용적 표현

요8:12, HH.1.15.126-132

‘천국의 빛(Light in Heaven)’

들이 있습니다. *Because there is a light that belongs to the understanding, the same things are said of it as of the eye, as that it sees and is in light when it perceives, and is in obscurity and shade when it does not perceive, and so on.*

131

천국 빛은 신적 진리이기에 그 빛은 또한 신적 지혜와 지성이며, 그래서 천국 빛속으로 들림받는다든 건 지성과 지혜 안으로 들림받아 환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천사들은 그들이 지성과 지혜를 가진 딱 고만 큼만 빛 가운데 있습니다. 천국 빛은 신적 지혜이기에 그 빛 속에서는 모든 이의 캐릭터가 드러납니다(*is recognized*). 모든 이의 내면이 있는 그대로 그 얼굴에 드러나는데(*lie open to view*) 극히 작은 것도 숨겨지는 것은 없습니다. 내적 천사들은 자기들에 관한 모든 것이 모조리 오픈되는 걸 좋아하는데 그것은 그들은 오직 선한 마음만 먹기(*will nothing but good*)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천국 아래 있는 자들, 그들은 선한 걸 의도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 빛에 노출되는 걸 극도로 꺼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옥에 있는 이들은 자기들 눈에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천국 빛으로는 괴물, 흉측한 얼굴과 몸을 가진, 저마다의 고유 악의 형상에서 나온 모습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sup>102</sup> *As the light of heaven is Divine truth, that light is also Divine wisdom and intelligence; therefore to be raised up into the light of heaven means the same as to be raised up into intelligence and wisdom and enlightened. For this reason the angels have light in just the same degree as they have intelligence and wisdom. Because the light of heaven is Divine wisdom, in that light the character of everyone is recognized. The interiors of everyone lie open to view in his face just as they are, with not the least thing hidden. And interior angels love to have all things that pertain to them lying open, since they will nothing but good. It is otherwise with those beneath heaven, who do not will what is good, and for that reason fear greatly to be seen in the light of heaven. And wonderful to tell, while those in hell appear to one another as men, in the light of heaven they appear as monsters, with a horrid face and body, the exact form of their own evil.<sup>102</sup>*

‘천국의 빛(Light in Heaven)’

※ 102. 모든 지옥에 있는 이들은 그들 고유의 빛, 곧 마치 타고 있는 석탄 불빛과 같은 빛에서는 자기들 끼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천국 빛에서는 괴물들로 드러남 *Those in the hells, in their own light, which is like the light from burning coals, appear to themselves as men; but in the light of heaven they appear as monsters (n. 4531, 4533, 4674, 5057, 5058, 6605, 6626).*

사람도 그 영에 있어서는 천사들이 볼 때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선하면 그 선에 따라 아름다운 사람 모습이지만, 반대로 그 사람이 악하면 그 악에 따라 아주 추한 괴물 모습입니다. 이로써 천국 빛에서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다는 것과 그래서 천국 빛은 신적 진리라는 사실이 아주 명백한 것입니다. *In respect to his spirit man appears, when seen by angels, in a like way; if good as a man, beautiful in accord with his good; if evil as a monster, ugly in accord with his evil. From this it is clear that in the light of heaven all things are made manifest, and for the reason that the light of heaven is Divine truth.*

132 신적 진리가 모든 천국에서는(in) 빛이기에 모든 진리는 그것이 어디에 있든, 한 천사의 안이든(within) 밖이든(outside of), 혹은 천국들 안이든 밖이든 빛이 납니다. 그러나 천국들 바깥에 있는 진리는 다릅니다. 이 진리들은 천국들 안에 있는 진리들처럼 빛나지 않습니다. 천국 밖 진리들은 온기 없는, 뭔가 눈처럼 차갑게 빛나는데요, 천국 안 진리들은 그 본질이 선으로 말미암는 반면, 이 천국 밖 진리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냉기어린 빛은 천국 빛이 그 위에 닿자마자 사라지며, 혹시 그 아래 악이라도 있었으면 즉시 어두움으로 변합니다. 저는 이것을 자주 보았으며, 진리의 빛남에 관해 다른 더 많이 언급할 만한 것들이 있으나 여기서는 이 정도로 약(略)해야 할 것 같습니다. *As Divine truth is light in the heavens, so all truths wherever they are, whether within an angel or outside of him, or whether within the heavens or outside of them, emit light. Nevertheless, truths outside of the heavens do not shine as truths within the heavens do. Truths outside of the heavens shine coldly, like something snowy, without heat, because they do not draw their essence*

요8:12, HH.1.15.126-132

‘천국의 빛 (Light in Heaven)’

*ce from good, as truths within the heavens do; therefore that cold light vanishes as soon as the light of heaven falls on it, and if there is evil underneath it, it is turned into darkness. This I have occasionally seen, with many other noteworthy things about the shining of truth, which must be omitted here.*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해로 인한 자연적 빛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는 천국의 해이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적 빛이 있다는 사실, 천국의 해는 주님의 신적 사랑이며, 천국 해에서 나오는 빛과 열은 각각 신적 진리와 신적 선이라는 사실, 천사들은 이 신적 진리와 신적 선으로부터 빛과 열을 얻는다는 것, 이 세상 자연을 자연의 빛으로 보듯 천국의 모든 것은 천국 빛으로 본다는 사실과 천국 빛인 신적 진리는 신적 지혜로서 천사들은 자기들이 가진 빛의 수용 능력만큼만 지혜롭다는 것, 천적 나라 천사들의 빛은 화염과도 같고 해처럼 빛나지만, 영적 나라 천사들의 빛은 밝게 빛나는 흰색이며 달처럼 빛난다는 것, 말씀 많은 구절에 나오는 ‘빛’과 ‘웃’은 다 이런 의미라는 사실, 천국

빛은 신적 진리요, 지성과 지혜이기  
에 더 높은 천국, 더 깊은 천국 빛  
안으로 들릴수록 더욱 지혜로워진다는  
사실, 천국 빛 아래 모든 천사들의  
내면이 그 얼굴에 밝히 드러난다는  
사실, 지옥의 영들은 자기들끼리는  
사람 모습이지만, 천국 빛 아래서는  
아주 흉측한 괴물 모습이라는  
사실, 천국 안의 빛은 신적 진리로서  
안팎으로 빛나지만 천국 밖 진리들은  
냉기어린 빛이요, 천국 빛이 닿으면  
사라지며, 만일 그 아래 악이 있었으면  
어둠으로 변한다는 사실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직 지상에  
머무르는 동안 힘써 천국 빛 안에  
거하여 일체 세상 어두움의 빛을 가  
까이 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  
시기를 주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  
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8:12)**

2022-11-13(D1)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